

2018년 4월 14일 “(침례식) 하나님의 사람이여!”(딤후 6:11-16)

어떤 말이 자신의 삶을 담을 수 있는 적합한 표현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황정인, 박형민 형제님과 모인 모두에게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르는 호칭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믿음의 선한 싸움 (두 측면: 돈(재물) vs. 성품을 추구함)

11 절 “이것들을 피하라” 앞서 3-10 절에서 몇가지 이슈들과 함께 돈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도는 돈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얽매이면 돈은 계속해서 고민과 시험거리가 됩니다. 바울은 돈에 대한 정욕으로 떨어지면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돈은 살아가면서 있는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돈은 어떤 경우든지 지혜롭게 자신과 공익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그런데 돈에 욕심이 생긴다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일만약의 뿌리가 됩니다(10 절). 돈이 없으면 마음이 아프고, 항상 맴돌고, 이것의 많고 적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함을 피해야 합니다.

돈에 관한 가르침과 함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영생을 취하라는 적극적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12 절). 이는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Fanning Springs 의 특징은 깨끗한 스프링 물과 스완 강가의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사도가 배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적 특징들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싸움입니다. 성도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늘 교회에서 듣는 이러한 신앙적 덕목들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새롭게 형성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까요?

얼만큼 내적 성품을 이루었느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의와 경건과 사랑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고 믿고 지속적으로 따르는 뜻입니다. 그래서 **14 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무작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쳐주고, 퍼주고, 희생하라는 외형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 의미인지 **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인내와 온유가 무엇인지 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운동 배울 때 힘 빼라는 말을 무수히 들어 알고 있지만 힘 빼는게 뭔지 감을 못 잡으면 계속 어렵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감 잡으면 이제부터 이렇게 힘 빼고 하면 쉬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죠. 또 학교 교사들은 자료를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과 접근 방법을 가지고 가르쳐야겠구나 하고 감 잡으면, 그 방향으로 확신을 갖고 즐겁고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예수님 믿고, 형제자매 사랑하며 섬기고, 말씀 대로 순종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이런 말씀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삶이 진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어떤 의도가 담긴 것을 말하는지 감 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감이 오지 않으면 방향과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2]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영생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즉, 악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며 감 잡고 확신할 때, 어떤 수준에서도 주님이 삶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경이를 맛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이죠.

롬 6:3-6(읽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고 또한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침례식에서 두 형제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이며,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영생을 취하고 맛보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지키며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고 확신하게 됩니다. 침례 받는 두 형제님과 증인 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고 맛보는 축복과 경이의 역사가 증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믿음의 싸움을 두 가지(부정적 vs. 긍정적) 측면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의 싸움에서 성경적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2. 침례식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정리하며 말씀해 보세요.